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삶 로마서 12:1-2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Vinh이고 Willingdon Church의 목사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할 때 성경 로마서 12:1-2절을 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가 변화된 삶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2장에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로마서에 대한 이전 시리즈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로라가 임신했다고 말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로라를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안아준 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돌볼 아기를 맡겨 돌보게 할까?

그러고는 저는 다른 부모들에게 아기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책을 공유하고, 팟캐스트를 공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날은 로라와 내가 첫 딸 그레이스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퇴원하려고 할 때에도, 간호사는 우리에게 유모차와 벨트 끈을 확인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레이스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조심스레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라는 내가 제한 속도의 절반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시속 200km로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가 얼마나 빨리 또는 느리게 가고 있는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 그레이스를 커피 테이블에 올려놓고(그레이스는 여전히 유모차 안에 있었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이제 어떡하지?"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정보는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도 나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발견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1-2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2. 자아에 대해 죽으십시오.
3.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로마서 처음부터 12장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점들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화면에도 표시될 것입니다.)

제1장 : 피조물의 반역/죄와 그 반역/죄의 결과.

제2장: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3장: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아무도 의롭지 못하지만,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제4장: 아브라함의 모범 =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제5장: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예수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의가 넘친다.

제6장: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는 살아 있다.

제7장 :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제8장: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삶

제9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제10장: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제11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도 가계도에 접붙여 주셨다.

로마서의 처음 11장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주장을 세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정통교리에서 바른실천으로, 즉 신학에서 실행으로, 정보에서 변혁으로, 고무가 도로와 만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저의 첫 번째 요점으로 가시죠.

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물리적 또는 전자 성경에서 하이라이트, 동그라미 또는 밑줄을 긋고 싶은 단어가 많이 있지만 "호소"라는 단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다음 몇 마디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형제자매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그의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그러므로"라는 말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목사가 "그러므로"를 "그래서 어찌라고"로 번역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11장을 사용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말하자면 "처음부터 11장까지 들었던 모든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첫 번째 이야기처럼,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찌라고요?"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레이 목사의 예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브라이언 목사의 예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은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야기와 같은 성경의 중요한 순간들을 마치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처리되고 이제 차 뒷좌석에서 잠을 잘 시간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 자율 주행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Tesla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진] 한 명은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자동차가 자가 운전 모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뒷좌석에 앉아서 예수 (Jesus)가 운전대를 잡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운전대를 잡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 빨리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법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는 바

울이 이 질문에 "by(~으로)"라는 단어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9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 첫 문장을 재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 나의 그리스도인 가족 여러분께 호소하오니..... 여러분은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제가 한동안 헤로인 딜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삶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거리 사역, 재활 사역, 교도소 사역 등.. 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특정한 사역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추종자가 아니거나 단지 기독교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이 여기 Willingdon Church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은혜는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전업주부는 다른 전업주부들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녀의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에게 구원된 것을 알면 이 전업주부 엄마는 이전보다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미친 듯 거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과 관련이 없고, 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저의 독특한 경험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자가 처음으로 교회 문을 통과하는 경험은 여기에서 공유된 경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찾고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찾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공동체를 찾을 수 없었던 대학생의 경험, 여기에서 그 공유된 경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Willingdon에서 지원을 받은 싱글 아빠의 경험은 여기에서 공유된 경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는 나눌 수 있는 훌륭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나누기 전에 성경은 우리를 무언가 다른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2. 자아에 대해 죽으십시오

저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저는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라와 나는 누군가의 집에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할 때 무엇을 가져갈지에 대해 항상 다채로운 토론을 합니다. Laura는 내 의견을 물어볼 것이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펍시, 펍시를 가져가자".

"펍시를 가져가면 안 돼".

"펍시보다 더 나은 것 한 가지만 말해줘".

"당신은 날 당황하게 만들지 마!"

로라는 나한테 너무 질려서 결국 나가겠지만 그녀가 나가는 동안 저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뭐야, 내가 그들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제 선물도 가져가야 하나?"

혹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된다면, 펍시를 기대하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초대는 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를 초대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 국왕이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해도 펍시를 가지고 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 그가 당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담입니다). 선물은 상황과 사람과 일치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에 정확히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육신만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호소"할 때, 그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몸은 살아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산 희생 제물이라는 개념은 1세기의 독자들처럼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 약간의 피를 보기 때문에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한 마리를 통째로 희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1세기의 사람들에게도, 죽일 산 제물을 고르는 데는 여전히 살아 있는 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흠이나 흠이 없는 동물을 골라야 했습니다("아니, 저게 아니라 저거!").
사방이 피와 내장으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다.
공기 중에 동물의 지방을 태우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태복음 6:22
-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마태복음 11:15
-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행복의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반포하며 시온에게 이 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라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 이사야 52:7
-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시편 51:10
-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 납되기를 원하나이다." - 시편 19:14
-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 빌립보서 3:18-19
-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빌립보서 2:9-11

성경 구절 몇 개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석구석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몸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월링던 교회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러 저를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것은 지금 한 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순진한 대화를 나누려고 왔는데, 제 얼굴이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월링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다가갈 때 사랑스럽게 나를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돼요, 저는 설교의 예화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감정이 있는 거 아시죠?

저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예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 예배는 그분께 이끌리는 우리 마음의 예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전히 전시되어야 합니다.

교회여,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나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안전과 보안을 의미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성화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끝내며 강조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라고 권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논리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마음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왜냐하면 내가 교회 예배에서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고, 예배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봉사인가? 예배는 느낌인가? 예배는 노래인가? 예배는 설교입니까?

진실은, 봉사는 끝날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이 끝날 것이며, 찬양도 끝날 것이고, 저의 설교도 끝날 것입니다 (바라건대 곧).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몸을 불러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요점이며, 그분은 얼마나 자주 그 경배를 원하십니까? 항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드러나지 않게) 경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개적인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공적(으로 드러나는) 예배를 요구합니다.

산 제사의 문제점은 항상 제단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제 눈에는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침대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리고 당신은 단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라도,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필요로 하면, 당신은 그것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필요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필요 없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내 자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남자는 여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자와 결혼한다. 여자들은 남자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남자와 결혼한다. 변함없이 둘 다 실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2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가장 잘 번역되고 이해됩니다. 순응이라는 용어는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눌리거나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순응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최근에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들 세대의 사실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진정성, 정직성, 투명성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 세대의 가장 큰 직업적 포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 섹스, 명예, 그리고 그 사이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크리스천들은 저울의 반대편으로 너무 멀리 물러났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세속 음악을 듣지 않으며, 캐나다 베이컨을 먹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이 순응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따르지 말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아무것에도 순응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2:2절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즉,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변화 "된다"라는 (수동태의) "be"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be"라는 단어는 명령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당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예수와 함께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변혁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본받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때 사용한 예입니다.

[사진] 그녀는 고무장갑을 꺼냈고 고무장갑은 정상적인 고무장갑이지만 그녀는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녀가 장갑에 손을 넣었을 때만 그 장갑은 제 역할을 합니다. 장갑은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형"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metamorphosis"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예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모하는 과정과 결과가 완벽한 "변형"의 예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생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예쁜 날개를 갖기 위해서? 그것뿐인가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좋은", "기뻐하심(받아들일만함)",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만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한 번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즉 세상에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아들일 만하고, 완전한 뜻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항상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묻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배할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분의 뜻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과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할 때 그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당신이 그분이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휴대 전화로 그걸 촬영할 수는 있지만 결코 정의를 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비디오를 보여 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이 거기에 있었어야 해요!"입니다.

예배 =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그것을 원하시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진] 미니어처 트리의 사진입니다. 그것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자, 여기 분재 나무 사진이 있습니다. 작가는 어떻게 식물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작가는 나무를 자르고, 자르고, 구부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는 전에 이것을 한 번 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돈과 명성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주어졌고, 예수는 지상의 왕처럼 통치할 수 있었지만, 그는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그들에게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성령님께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워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질문

1.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2.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경향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순응에 저항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 더 의도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까?
3.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성경 암송,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와 같은 영적 훈련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

축복

[유1:24-25]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
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